

반쪽짜리 국제공항 벗어나...무안공항 활주로 연장 본격화

중대형 항공기 이착륙 가능한 360m 연장 추진

기본계획안 주민의견 수렴 나서...2023년 완공

KTX·광주공항 국내선 이전 등 거점공항 청신호

중대형 항공기의 이착륙이 불가능해 반쪽짜리 국제공항에 머물렀던 무안국제공항의 활주로 연장공사가 본격화된다. 무안군은 최근 무안국제공항의 활주로

및 유도로 연장 등을 내용으로 하는 '무안국제공항개발 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에 들어갔다고 12일 밝혔다. 기본계획안은 광주·무안국제공항 통합

과 중장거리 노선 신설 등 항공수요 증가에 대비한 활주로 연장 등을 담고 있다. 부산지방항공청이 시행하는 무안국제공항 활주로 연장사업은 현재 2800m인 활주로와 유도로를 3160m로 360m를 연장한다. 설계·착공비 20억원이 올 정부예산에 반영돼 내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348억 70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이번 사업으로 공항구역면적은 기존 269만6000㎡에서 274만7000㎡로 늘어나고, 활주로 연장으로 지방도 815호선과 군도 101호선이 이설된다.

사업이 완료되면 전국에서 4번째로 보잉 747 등 중대형 항공기의 이착륙이 가능한 국제공항으로 재탄생한다.

무안군은 오랜 숙원인 활주로 연장과 KTX 통과, 광주공항 국내선 이전 등이 완료되면 무안국제공항은 서남권 거점공항으로 거듭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무안공항을 경유하는 호남고속철도 2호선 고막원~목포 43.9km는 지난달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실시설계를 발주해 오는 11월께 업체가 선정되면 내년에 착공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호남고속철 2호선은 2025년 완공 계획이지만 전남도 등에서 2년 앞당긴 2023년 조기 개통을 정부에 요청하고 있다.

또 광주 군공항 이전의 변수가 잡혀 있지만 광주공항 국내선의 무안공항 이전도 내년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다.

무안군 관계자는 "무안·광주공항이 통합되고 고속철이 개통되면 무안공항 활성화와 커다란 전기가 마련될 것"이라며 "2022년 MRO(항공정비) 단지까지 준공되면 무안은 항공산업의 핵심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무안=이기성 기자

섬진강 5개 시·군 "정쟁 도구로 악용 말고 피해복구 우선하라"

"하류 피해, 댐관리 부실 인재"

"섬진강유역환경청 신설해야"

댐 방류 수위 논의기구 필요"

섬진강댐 방류로 침수피해를 입은 전남과 전북 5개지역 단체장은 12일 "댐 관리 부실로 섬진강 하류지역 주민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었지만 정치인들은 정쟁만 일삼고 있다"며 "지역의 이름을 더이상 정치적 도구로 이용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전남 곡성군수·구례군수, 전북 남원시장·임실군수·순창군수는 이날 공동 성명을 통해 "섬진강 하류지역 수해는 한국수자원공사 등 댐관리 기관이 집중호우가 예보됐음에도 선제적 방류는 커녕 담수만 고집하고 있다"고 발생한 인재이다"며 이 같이 밝혔다.

또 "기록적인 폭우로 섬진강의 수위가 최고 높아진 8일 오전에서야 댐의 최대치인 초당 1870t의 물이 긴급 방류됐다"며 "이로 인해 섬진강댐 하류지역 주민들은 평생을 살아온 집터는 거센 물살에 찢겨 아수라장이 됐고, 물에 잠긴 논밭은 황폐해졌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번 사태는 자연재해가 아닌 수위조절 실패에 따른 인재로 일어난 대형참사이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5개 단체장들은 "섬진강 하류 지역의 이름을 미래통합당과 무소속의 몇몇 정치인들은 정쟁의 도구로 이용하고 있

다"고 주장했다.

단체장들은 "몇몇 정치인들은 기록적인 물난리가 섬진강이 4대강 사업에서 빠졌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이는 피해 주민들의 아픈 상처에 소금을 뿌리른 것과 다르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섬진강 유역에 자리잡은 지역은 수천 년을 강이 주는 혜택과 더불어 살았다"며 "1965년 섬진강댐이 완공되면서 상황은 달라졌고 가뭄된 물은 물결의 정반대인 김제평야에 필요한 용수로 사용돼 지역을 흐르는 섬진강은 메말라갔다"고 설명했다.

이울러 "폭우가 집중되는 하절기엔 댐 방류량에 촉각을 기울이며 불안에 떨어야 했던 세월이 55년째이다"며 "이런 상황에서 정치권의 권력다툼은 지역민들에게 수해보다 더 큰 고통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섬진강 하류지역 피해는 수위조절 실패에 따른 인재로 일어난 대형참사이다"며 "댐관리 기관은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 있는 답변과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정치권은 정쟁을 멈추고 상처입은 섬진강 하류 지역 주민들에게 즉각 사과해야 하며 체계적인 수계관리를 위해 섬진강 유역환경청이 신설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진지한 논의와 함께 댐 방류 등 수위조절은 지역민들의 생명과 재산에 직결되는 만큼 지역민을 대표하는 기구와 협의를 통해 결정될 수 있도록 협의체 등을 구성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구례=박진호 기자



구례5일시장 수해피해현장 찾은 문 대통령

집중호우 피해현장 방문에 나선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전남 구례군 구례5일장을 찾아 피해상황을 둘러보고 있다.

'최악 물난리' 전남 농작물 병해충 방제 '비상'

2차 피해 예방...15일까지 공동방제

최악의 물난리로 농작물이 대거 침수된 가운데 전남도가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공동 방제가 나섰다.

12일 전남도에 따르면 최근 집중호우로 인해 전남지역에서는 지난 11일 기준 벼 6738ha와 밭작물 320ha, 시설작물 422ha,

과수 194ha 등 총 7674ha가 침수됐다.

전남도는 배수펌프장 183개소를 수시 가동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펼쳐 현재 퇴수가 완료된 상황이다.

하지만 침수와 더불어 장기간 지속된 장마로 인해 벼에는 흑병·나방·먹노린재 등 해충과 도열병, 잎집무늬마름병이, 고추에서는 탄저병과 역병 등이 발생될 수 있어

피해가 우려 된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오는 15일까지를 공동방제 기간으로 정하고 도와 시군의 광역살포기 20대, 무인헬기 16대, 드론 168대 등 방제장비를 총 동원해 병해충 방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지난 7월 27일부터 추진해온 기본 공동방제와 함께 병해충 발생이 우려된 침수지역 중심으로 긴급 추가방제를 실시해 2차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김정환 기자

지금은 모두가 어려운 때입니다. 노사민정이 손을 잡고 코로나19를 함께 이겨냅시다.



- 기업은 고용유지에 힘쓰고
- 근로자는 생산성향상에 최선을 다하고
- 정부는 일자리 안정에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합니다.

고용불안·노사갈등 노동문제로 애로가 있는 개인이나 기업 노동조합등 누구든 신청하시면 직접 방문하여 갈등해소를 위한 중재를 해드립니다.

☎ 신청 및 상담전화 062) 524-9666

전라남도노사민정협의회 · 전라남도 노사갈등조정해결실무위원회